주거변화의 일상사적 담론과 한국 주거의 근대화과정*

Discourse of "Alltagsgeschichte" and Modernization Process of Korean Housing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 전공
조교수 전남일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 전공
교 수 홍형옥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 전공
교 수 양세화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 수 손세관

Major of Consumer and Hou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 Nam-Il Jun
Major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 Hee University
Professor : Hyung-Ock Hong
Major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 Sehwa Yang
School of Architecture, Chung Ang University
Professor : Sei Kwan Sohn

◀ 목 차 ▶

Ⅰ. 서론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Ⅲ. 주거공간의 근대화에 대한 일상사적 담론
Ⅳ. 개항 이후 한국 주거의 일상사적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modernization process of korean housing during the past one century. To following up the changes of everyday lives of common peoples, magazines, news papers, tourist's records and gossip items were collected and interpreted from the microscopic point of view. In this study arguments on 'modernity' of korean housing was focused on some issues, thus, separation, differentiation, individualization, as well as privatization. Concrete discourses are; firstly, spatial isolation of housing and urban place each other, secondly, functional division of inner spaces of housing, and lastly, guarantee of privacy sphere. Historical changes of housing

Corresponding author: Nam-Il Jun,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ngsim Campus 43-1 Yokkok 2-Dong, Wonmi-Gu, Puchon, Kyunggi-Do, Korea Tel: 02-2164-4303 Fax: 02-2164-4301
E-mail:

* 본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 육성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한국근현대 지원(과제번호 2003-073-CS1001)'으로 이루어졌음.
* 본 논문은 2006년 4월 29일 대한가정학회가 주최한 제 59차 춘계학술대회 「일상생활 · 일상성 · 생활과학」 의 주제발표임

showed some meaningful phenomena. Before modernization housing was place of reproduction and consume at the same time. However after modern urban space came into existence and work and rest were separated, housing gained only mono function. Thus, housing have only one meaning as private place for nuclear family, that is "Home, Sweet Home." Instead of past multi-functional rooms, functional prescribed rooms, for example, dinning room, were newly born. In the past, the boundary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 was not clear. For examples, everyday experiences of family were extended to the street and in the house in most cases spaces were shared. But after modernization the scale of individual spaces become larger and private life can be secured. Consequently, history of everyday life from traditional agricultural society to industrialized modern society demonstrates the structural context between the micro and macro dimension in the fields of human life. In other words, everyday lives and macro history response each other and create new perception of time-space structure in the modern housing.

주제어(Key Words): 일상사日常事(everyday life; alltägliches Leben), 일상사日常史(history of everyday life; Alltagsgeschichte), 근대화(Modernization), 분리(Separation), 분화(Differentiation), 개별화(Individualization), 내밀화(Privatization)

I. 서 론

1. 주거사 연구의 일상사적 관점

일상사日常事(everyday life; alltägliches Leben)는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이며, 친숙한 것이다. 그것의 변화는 느리고 감지하기 어렵지만 변화된 일상사는 어느 순간 다시 친숙한 것이 되고 하나의 규범화된 일상사를 만든다. 왜냐하면 일상사의 변화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하나의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내고 나, 또는 우리는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망에 얽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사는 개인적인 것도 하지만 집단적이기도 한 것이고 일정한 방향으로 큰 흐름을 형성한다. 일상사日常事는 일상사日常史(history of everyday life; Alltagsgeschichte)의 차원에서 더욱 정교하게 이해된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은 과거의 우리의 삶인데, 어떠한 세세한 조각들이 모이고 변화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상사의 핵심인 것이다.

인간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변화의 큰 줄기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거시적 차원의 사건변화 이면에 존재하는 일상사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20세기 후반부터 역사학자들은 역사에서 사소한 것, 개별적인 것, 그리고 우연적인 것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으며, 생활사, 일상사, 신문화사, 미시사 등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냈다(정연식, in: A. Lüdtke 편, 나종석, 문수현, 이유재, 박용희, 이동기 역, 2002: 6). 이 중 인간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는 생활과 일상의 많은 부분과 중첩되는 영역으로 일상사적 시각으로 관찰하는 것이 매우 유효하다 할 것이다. 특히 일상사에 대한 미시적 관점은 계량적 방법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개개인, 혹은 공동체의 인적 관계망과 가치관, 일상적 생존전략 등을 조망하도록 해 준다(곽차섭, 1999). 이렇게 개인적 일상의 차원에서 역사발전 과정의 구체적 측면을 가시화하려는 학문적 노력은 우선적으로 역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발전모순의 구체적 작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기대와 연결된다. 일상사의 대상은 '역사 속의 객관적인 것의 복합성과 주체성'의 상호작용에서 일상생활에 주어진 역동성을 파악하는 것이다(H. Dehne, in: A. Lüdtke 편, 나종석 외 4인 역, 2002: 216). 본고는 한국주거의 역사를 고찰함에 있어서 일상사적 측면을 심도있게 관찰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2. 연구의 목적

일상사의 주체는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 대상은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아우른다. 이들의 모습을 미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전체의 모습을 투시하게 된다. 또한 일상세계는 연속적이고 항구적이다. 일상은 인간에게 신뢰를 주며, 인간이 정서적으로 안락하게 의지할 수 있는 평온한 영역이 된다. 이로서 일상은 인간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 일상은 지속적이지만 결코 정적이지 않으며 완만하지만 항상 변화하는 영역으로, 비일상에서 비롯되는 자극을 받아들인다(윤용선, 1998).

한국사회가 19세기 말 외부에 개방되고 근대적 사회로의 첫발을 내디딘 이후, 지난 1세기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를 둘러 싼 모든 것들은 사회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변화해 왔다. 경제적 성장, 산업의 발전, 문화적 성숙을 이루었고 생활의 질의 향상도 이루었다. 또한 정치적 격동을 겪었으며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도 겪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시대마다 우리의 세세한 삶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하나하나 모여서 '일상사日常事'라는 또 다른 차원의 우리 생활의 자화상을 만들어 왔다.

그동안 거시적 차원에서의 근대화과정을 이해해 왔던 많은 시도들이 있어왔지만 본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근대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주거는 생활과 가

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므로 일상사적 관점을 통해 미시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근대 이후 격변의 시간을 보낸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상사의 하나하나 장면들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근대성'을 설명하는 데 충분히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

우리 사회가 근대화 과정에서 경험한 거시적 변동은 일상의 변화에 동기를 부여했으며, 일상에 침투한 역사는 다시 일상을 만든다. 이때 우리는 여기서 역으로 거시적이고 특별한 것과 상호작용 하는 보통의 것들이 설명하는 '근대성'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일상적 생활의 행위들 중 주거생활에서 경험한 일상사의 변화를 추적하여 현재 우리 주거공간의 역사를 '일상 변화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개인이 생활의 변화와 타협하고 또한 집단적 공감을 불러일으켜 일반화되는 과정, 즉 우리 모두의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일상생활의 구조를 시공간적 구조와 사회적 구조(강수택, 1998)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거라는 물리적 환경과 그 안에서 형성되는 생활행위의 양상을 심도이게 이해하는 것이다. 전자는 외적 조건들에 의해서 형성된 의미구성체의 형태로, 일상생활의 주체인 개별 행위자의 행위수행에 유형화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인데, 여기서는 주거공간의 변화가 해당된다. 또한 후자는 개별 행위자의 행위 수행에 유형화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 간접적 인적조건, 즉 인간관계적 조건들로써, 여기서는 주거공간의 근대성을 논하는 몇몇 화두, 즉 개인의 자유를 담보하는 '분리', '분화'와 '개별화', '내밀화' 등을 언급할 수 있다.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일상사적 관점에서 이끌어 낸 주거의 변화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주거공간의 변화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주거공간의 근대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다각적인 근대화 과정에 대한 논의들을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했으며, 여러 이론가들의 다양한 시각들을 첫째, 주거공간 자체의 기능 변화, 둘째, 주거공간 내부의 각 실의 기능적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 공간의 형성 등의 큰 세 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 측면의 일상사적 담론들과 연계된 일상적 주거행위들을 시간적, 단계별로 구체적인 사건 위주로 관찰하고 해석했는데, 이러한 고찰을 위하여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모여서 역사를 만드는 보통사람들의 소소한 기록들이라 할 수 있는 여행기, 신문, 잡지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이때 거시적 차원이 아닌 미시적 차원의 좁은 범주를 집중하여 관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일상사 자료는 개인의 삶의 기록이므로 다수의 표본으로부터 일반성이 높은 추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특정의 대상에 대한 두터운 묘사를 특징으로 한다(홍형옥, 2005). 일상의 단편적인 개개의 행위가 전체를 확대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브로델(F. Braudel, 주경철 역, 2004: 20)의 일상사 연구에 대한 기본 틀이 잘 설명해 준다. 그는 일상성이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거의 표시 날까 말까 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관찰공간을 좁힐수록 물질생활의 배경 그 자체 속으로 들어갈 기회는 더 커진다. 큰 단위는 일반적으로 큰 역사에 해당된다. 그러나 관찰시간을 아주 짧은 시간 영역에 한정시키면 사건이나 신문의 잡보 면에 나오는 일상사들을 보게 된다.

본 연구 역시 브로델 식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신문, 잡지, 여행자의 기록 등에서 주거관련 기사를 수집한 후, 수많은 자료 중 근대화 과정을 읽을 수 있는 '일상사적 담론'과 관계된 부분을 발췌하여 해석에 활용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건은 유일한 것이나 유일하다고 믿는 것이다. 잡보면의 일상사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일반성, 혹은 구조가 된다. 그것은 사회의 각 층에 침투하여 영구히 반복되는 존재양식, 행동양식을 특징짓는다. 몇 몇 일화만 있어도 그것이 표시등 역할을 하여 생활양식 등을 밝혀 주기도 하는 것이다(F. Braudel, 주경철 역, 2004).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전 단계로 '한국주거의 근대화 과정'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 중, 일상사 관련 자료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한국 주거의 일상사적 고찰의 시기적 범위는 개항부터 현재까지로, 이 시기는 거시적 역사의 변화 틀에 따라 구분된 개항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시기와 경제개발 시기, 그리고 현재의 시기를 아우른다. 또한 근대 이전의 주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전통주거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통시적 서술방법을 견지하였지만, 일상의 변화는 정치, 사회적 시기구분과 같은 뚜렷한 시기적 경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제목으로의 구분은 시기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단지 편의상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고찰의 대상은 한 시대의 문화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상류계층, 그리고 '보통사람의 일상'을 추정할 수 있는 서민계층이다. 문명화이론에 의하면 사회변동 시기에 새로운 생활습관, 행동양식 등은 '문명'을 표방하는 상류계층으로부터 시작되어 끊임없이 상위 중산층에 침투되고, 그곳에서 모방되어 변형된 후 또 다시 하위계층에 전파되어 전체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다(전남일, 2003). 따라서 한 시대의 상류계층의 일상사는 그 다음 시기의 서민계층의 일상사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상류, 중류의 계층을 넘나드는 서술은 시기적 편차를 수용하면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표 1> 한국 주거의 근대화 과정 및 일상사 관련 수집자료 목록

자료명	종류	부수
조선과 건축	논문	53편
조선건축(조선건축기술협회기관지)	논문	10편
비전문지 건축계몽론 문헌집	문헌	28편
개항기 이전 신문	신문 기사	38편
동아일보	신문 기사	209편
조선일보	신문 기사	268편
개벽	잡지 기사	10편
동광	잡지 기사	2편
별건곤	잡지 기사	19편
삼천리	잡지 기사	74편
서북학회월보	잡지 기사	13편
서우	잡지 기사	19편
태극학보/호남학보	잡지 기사	30편
YWCA 월간	잡지 기사	9편
공간	잡지 기사	27편
신동아	잡지 기사	48편
신동아(80-90년)	잡지 기사	36편
여성동아	잡지 기사	72편
월간조선	잡지 기사	67편
주택저널	잡지 기사	187편
뿌리깊은 나무	잡지 기사	8편
현대주택 1	잡지 기사	48편
현대주택 2	잡지 기사	74편
현대주택 3	잡지 기사	17편

다. 한편 지역적으로는 한국의 주거문화와 근대화 흐름을 주도했던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역시 문명화 이론에 의하면 시차를 두고 지방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III. 주거공간의 근대화에 대한 일상사적 담론

주거공간의 근대화에 대한 일상사적 담론은 주거공간 자체의 기능 변화, 둘째, 주거공간 내부의 각 실의 기능적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 공간의 형성 등의 세 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세 담론은 일상사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문헌고찰의 결과 주거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측면이었다.

1. 주거공간과 도시공간의 이분화 담론

흔히 일상생활은 매일 반복되는 진부한 것이며,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이 차지하는 역사 속에서 그 사건들의 나머지 것이라고 논의된다. 그렇다면 진부하다고 여겨지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변화라는 것은 모순되는 개념으로 부딪친다. '일상이 여전히 진부한 것이라면 일상의 변화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라는 논의에 대한 답은 일상성과 역사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다. 일상성과 역사의 부딪침은 일상에서의 격변을 초래하고 일상을 붕괴시킨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붕괴된 일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일상의 패턴을 창출하며 변화된 역사에의 적응성을 보이게 된다. 일상은 역사를 압도하며, 일상성과 역사는 상호 침투한다. 사회적 변혁기라 할 수 있는 근대화 과정에서 역사의 지배를 받는 일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일상행위와 일상사(日常史)를 만들어 나가며 또 다시 역사에 피드백 되는 순환고리를 형성하는데, 이것의 주체는 생활의 주체인 미시적 차원의 개인이다.

근대적 사회는 개인을 특징짓게 하고, 각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권리를 행하도록 한다. 과거 상호 소통이 불가능했던 사회와 개인은 소통 가능하게 되고 여기서 개인은 사회 내의 권리를 행하게 된다. 특히 도시화로 대표되는 근대사회의 새로운 공간적 특성은 공간적 분리와 총체화, 이동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불러왔다. 르페브르(H. Lefebvre)에 의하면 일상생활은 근대성의 가치들을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G. Gambakorta, in: 박재환 편, 2004: 289). 근대적 생활의 특성은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이 시간적, 공간적 구분 없이 혼합된 구조, 즉 직선적 시간구조 대신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이 일정한 시간대로 나누어지고 반복되는 주기적 시간구조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때 분리된 생활체계는 각각 분리된 공간에 편입되는 것이다. 공간적 분리는 사회 전체까지 확대하여 보면 도시공간과 주거공간의 이분법적 구조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공적 영역으로부터 분리된 주거공간에서의 생활은 공적 생활과의 대립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시간 배분 속에서 고정되어 교차되는 것이다(K. Kosik, in: 박재환 편, 2004: 126). 이는 일상생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변화되는 것이며, 근대적 인간인 개인은 이를 계산하고 지배할 수 있으며, 직접 경험함으로써 점차 이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반복적 세계와 친숙해 진다.

도시생활은 근대성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발전, 즉 인간의 생활의 장에 대한 의미가 욕구로부터 욕망으로의 발전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상의 생활행위이다. 르페브르의 입장에서 사회의 공간화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현상으로(G. Gambakorta, in: 박재환 편, 2004: 303), 새로운 도시에서 생활공간의 분화는 가장 결정적인 개개의 구조화된 장소들을 규정한다. 또한 일상생활과 도시화된 영역과의 관계는 근대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현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첫

번째 방식이다. 한편, 이분화된 도시와 주거공간의 역학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하여 수행되는 기능들의 전문화와 분화 정도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이 도시공간과 주거공간 중 어느 곳에서 수행되는가 하는 문제는 주거공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와 마주친다. 삶의 행위들이 상업화, 산업화의 영역으로 이관되는 이면에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주거공간의 의미가 퇴색되고 아주 작은 부분의 생활시간만을 지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동반된다. 하버마스(J. Harbermas)는 이러한 현상을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이진우 엮음, 1996, in: 홍형옥, 2005에서 재인용). 즉,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체계와 관료행정 체계의 복합성과 강제성이 증대되어 생활세계의 일상적 실천이 위협받고 파괴된다는 것이다.

헬러(A. Heller)에 의하면(강수택, 1995) 근대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은 모든 수단, 기호품, 행동양식, 상투어 등을 사회적 생산을 통해 완료된 상태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소비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이 이루어진다. 일상 내부에서의 이러한 소비의 영역은 점차 커지며, 그 결과 이곳은 더욱 수동적인 존재로 된다. 그녀는 사람들의 이러한 수동성의 심화야 말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소외형태의 하나로 본다. 미분화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일상세계, 곧 그들의 직접적인 주변세계가 전체사회의 세계와 일치했었는데, 사회의 분업이 이루어지고 계급사회 -여기서는 자본에 의한-가 성립하면서부터 그 주 세계가 분화되기 시작했다. 분업화된 계급사회에서는 구체적인 주변세계의 능력들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전체사회에서는 '소외의 습득'을 의미한다(강수택, 1995).

주거공간의 재생산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분리되는 이분화 현상이 이 소외의 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주거공간의 기능이 고정화되는 과정이다. 일상생활의 시간구조가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시간구조로 바뀌면서 주거공간 내, 외 영역의 기능도 고정화되면서(H. Häusserman & W. Siebel, 1996) 일상의 기능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주거공간의 반경을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면 생리적 현상, 가사 등의 기능은 기술 및 설비의 발달로 초기에는 집안으로 유입되고 나중에 다시 사회 속으로 이전되는 반면, 직업적 노동은 반대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 것이다.

2. 주거공간의 기능화에 대한 담론

인간은 주어진 공간에 타성적으로 적응하며 하나의 전형(typification)을 만들어 낸다. 전형이라는 것은 되풀이되는 경험 속에서 타당한 측면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것들을 자동적으로 특정화 하도록 의식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T. Luckmann, in: 박재환 편, 2004: 89). 또한 이 전형은 반복되어 전파되고 일정한 종류의 집합체를 이루면서 유형(typology)으로 정착해 나간다. 실제적 현상으로 구체화된 유형으로서의 경험은 당장의 순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지속성을 보이며, 어떠한 것의 범례로써 일반성으로 포착된다. 인간이 경험하고 만들어 낸 결과로써의 개개의 공간은 그 속에 존재하는 관계들의 사회적 구조를 나타내며, 공간의 구조, 즉 평면적 형상으로 구체화된다. 지식의 주관적 축적 속에 침전되어 있는 '전형화'와 '경험적 구조'는 경험의 일상적 과정을 인도하는데, 이때 '행위의 문제'에 대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몇 몇 전형화된 공간적 모델은 경험적 구조와 행위의 문제 모두를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해결책으로 간주된다(G. Gambakorta, in: 박재환 편, 2004: 300).

워스(L. Wirth)의 주장은 도시생활이 고립과 사회적 해체로 특징져진다는 것이다(M. Savage *et al*, 김왕배, 박세훈 역, 1996: 127). 도시의 많은 수(數)는 개인적인 다양성,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상대적으로 결여되는 것, 익명적이고 피상적이며 일시적으로 인간관계가 분절화 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특징들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밀도는 다양화와 전문화, 가까운 물리적 접촉과 먼 사회적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 확연한 대조적 현상들, 복잡한 격리형태, 공식적 사회통제의 지배, 심화되는 갈등, 그리고 그 밖의 현상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이질성은 견고한 사회구조를 붕괴시키며 이동성과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개인들의 관계가 다양하게 교차되며 구성원의 교체율이 높은 피상적인 사회집단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근대화된 사회에서 도시와 주거로 분리된 후의 2차 영역이 된 주거공간에서는 도시라는 거대단위에서 일어났던 사회적 관계들이 내부에서 반복되어 발생하는 현상, 즉 소도시적 관계를 형성하는 현상이 목격되며, 이로써 구성원들 사이의 새로운 역학관계가 만들어진다. 아울러 근대적 공간은 도구적 이성에 기초한 선험적 공간의 발달과 자본축적의 논리에 기초한 기능적 공간의 발달을 가져왔는데(최병두, 2002), 도시와 주거 내에서의 엄격한 시간배분, 그리고 생활시간 및 생활행위의 기능적 배분은 공간의 기능적 배분으로 귀결된다. 근대사회에는 인간 경험을 동질화하는 기저에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는 생산성의 논리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공간사용의 규범은 일상생활의 전 과정을 특정한 수준에서 객관화한다(A. Heller, in: 박재환 편, 2004: 364). 이미 만들어진 세계, 즉 인간이 태어나는 환경이며 그가 움직이기 위해 학습해야만 하고 작동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환경이 객관화되는 것이다.

르페브르는 세 가지 공간적 요인들 간의 관계에 특히 주

목하는데(M. Savage *et al*, 김왕배 외 1인 역, 1996: 166-167),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공간의 표현(representation of space), 표현의 공간(representation)이 그것이다. 이는 경험된 공간, 인지된 공간, 상상된 공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목적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의 변증법적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었다. 공간의 사회적 구성은 장소의 가치가 차별화되는 담론과정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적 장소경험의 변화 역시 포함하는 것이다. 경계 지워진 장소와 장소는 기능이 상호 투과된 복합적이고 비균질적(heterogeneous)인 상태, 그리고 각각 차별화된 단일하고 균질적인(homogeneous) 상태와의 사이에서 경험되는데, 이는 행위의 분화 및 공간의 기능적 분화와 연계되어 있다.

3. 사적 공간의 소외 담론

르페브르류(類)의 일상성 담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와 직결되어 있다(박재환, in: 박재환 편, 2004: 29-31). 그는 일상의 두드러진 특정한 성격을 인간존재의 대면적 반성과 결부시킨다. 즉, 일상의 논의를 인간의 내면적 고뇌와 불안이라는 근원적 문제와 관련시키면서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이때 개인과 사회 전체를 역동적이고 변증법적인 관계에서 다루고, 개인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는 욕구 자체가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창출되고 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적 대면관계, 타인과의 관계, 상호작용 등에 형식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관계는 범주화되며, 그것이 일어나는 장소는 특정한 '영역'으로 설정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전형화 되어가는 대면상황에서 멀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익명화 되어 간다는 점이다(T. Luckmann, in: 박재환 편, 2004: 283-285). 공간적 차단과 공간적 거리감은 인간관계의 범주의 크기와 반비례한다. 예를 들어 보다 큰 세계에 대한 거리감과 익명성에 대한 지각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좁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반대이다. 사회적 구조는 이러한 전형화에 의해 결정된, 반복된 양식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구조는 일상생활의 현실을 평가하는 본질적 요소가 된다. 인간은 공간의 심도와 층위, 그리고 차폐성과 거리 및 동선을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제어하게 된다.

이것은 근대사회의 특성과 결부시켜 설명될 수 있다. 근대사회에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점점 익명화되는 소외의 문제는 주거공간 내에서의 자기 대면으로 표출된다. 개인은 깊숙이 들어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물러난 도피처로서의 공간에서 최대한의 익명성을 담보로 욕망의 자유로운 분출을 희망한다. 멜루치(A. Melucci, in: 박재환 편, 2004: 411)에 의하면 이것은 변형된 자유이며, 이때 욕구는 자연으로부터 부과된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선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욕구는 사회화되며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는 특히 근대사회에서 욕구는 결핍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상적 생활세계는 이웃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실재이자 경험현장이며 상호적 행위가 지향하는 목표영역이다. 인간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인간은 생활세계의 피동체이자 능동체이다.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인간이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의미를 얻는다는 점을 강조한다(홍형옥, 2005). 이를 더욱 확장된 의미에서 이해하면, 인간은 상호작용의 관계를 넘어서, 관계 자체를 자유의지에 의해 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한다. 내밀화된 공간에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근대적 공간이 가져다주는 최대의 혜택이다. 이러한 내밀화된 공간은 개인의 욕구가 최대한 충족되는 것을 지향하는 사생활의 공간이라고 흔히 이해된다. 짐멜(G. Simmel)에게 있어(M. Savage *et al*, 김왕배 외 1인 역, 1993: 146) 근대생활이란 외부적 행동으로부터 내부의 정신생활과 느낌이 파괴되는 것, 즉, 짐멜의 용어로는 '객관적 삶으로부터 주관적 삶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 불안정성과 혼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생활의 감각들을 공격하는 다양한 자극이 주어질 때 내부의 지적 세계, 즉 우리들의 경험에 대한 여과기로 작용하는 세계로 후퇴하게 된다. 기능적 공간의 세계화에 노출된 인간은 자신의 생존공간을 점차 축소시킨다. 대면적 관계가 바탕이 되었던 전통적인 공동체공간이 해체되면서 개인들은 점차 공공적 공간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가족들 간의 사적 관계로 구성되는 가정의 공간을 자신의 은신처로 간주하게 되었다. 가족관계 조차 해체되면서 인간의 공간은 마지막 보루인 신체공간으로 더욱 축소되어 간다(최병두, 2002).

산업화와 관료제화로 대표되는 근대적 합리성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배는 그것의 불합리성에 대한 불만을 야기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이었다. 이러한 불만의 결과는 근대적 해결책으로 합리적 의미영역과 비합리적 의미영역의 분리와 공존이다. 즉 공적 영역에서는 합리적 사고가 지배적이게 되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억압된 비합리적 충동을 표면으로 나타내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익명의 상태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피난처가 극히 사적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즉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부터 격리된 영역으로서 창조되어 정체성에 대한 일종의 균형기제로 역할하게 된 것이다(강수택, 1998). 근대 이전의 주거공간에서는 사회적 삶이 주류였기 때문에 '혼자 있는 일'이 결코 없어 누군가와 늘 함께 있었으며, 이것을 당연한 것으

로 인식했으나(H. Häusserman & W. Siebel, 1996) 주거공간 내 피난처가 등장한 이후에는 '혼자', 또는 '같이'는 분명한 경계를 갖게 되었으며, 또한 이를 택하는 것도 자유의지에 좌우되게 되었다.

IV. 개항 이후 한국 주거의 일상사적 변화

1. 주거공간과 도시공간의 이분화 담론으로 본 주거공간의 기능과 역할 변화

1) 모든 일상과 비일상의 장이 되는 주거공간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의 전통이 강했으며, 외세에 의해 개항이 되기 이전까지 수천 년간 사회와 일상생활의 변화는 미미했다. 조선의 전통주택에서 주거공간은 일상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내부공간인 방, 그리고 내, 외부공간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대청, 그리고 외부공간은 각각의 기능이 있었다. 주거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주거생활의 기능들은 같은 공간에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방에서는 취침, 휴식, 손님접대, 씻기, 식사, 육아, 노인병간호, 가사일 등 일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졌고, 마당에서는 주로 혼례, 상례, 잔치 등의 비정기적 일상사와 음식보존, 가사 및 생계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에서부터 교육과 혼례, 병자간호, 노인봉양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모든 일상, 비일상적 생활의 장이 된 곳이 주거공간이었다. 예를 들어 임산부에게 출산 기미가 있으면 산실을 준비하는데, 평소에 임신부가 사용하던 방을 깨끗이 치운 후 아랫목에서 자리를 깔고 해산준비를 했다. 윗목에는 아동보호신인 삼신을 위한 삼신상을 차려 놓기도 했다. 또한 혜민원과 같은 근대적 의료시설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병자를 치료할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병자가 평소에 사용하던 방에서 돌보거나 혹은 거처할 곳을 따로 마련하여 보살피기도 하였다. 헛간을 병자 수발하는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다.

"문이 열려 있는 헛간에 한 남자가 중병으로 누워 있었다. 앞에는 돗자리를 깔았고 낮은 병풍을 둘러치고 있었으며 그 안쪽에는 떡과 밥, 삶은 닭, 콩나물, 그리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으로 상이 차려 있었다(I. B. Bishop, 1897, in: 신복룡 역주, 2000)."

한편 농경사회의 특성상 생계를 위한 일과 가사 행위는 혼합되었으며, 주거 내에서 가족구성원이 머무는 시간이 불규칙했다는 것도 전통주거의 큰 특징이었다.

2) 도시공간의 등장과 주거 밖에서의 생활

개항과 갑오경장은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는 것과 함께 한국사회의 시스템이 근대적으로 변화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상공업이 발달함으로써 새로운 일거리와 직업이 생겨났으며, 학교와 병원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시설 등이 속속 건립되었다. 이때부터 하루의 대부분 시간, 요일의 구분 없이 주거공간의 반경 내에서 행해졌던 일상사들은 '학생'과 '직장인'의 등장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이관되기 시작하였다. 주거 내에서의 생활은 하루 일과나 주중 및 주말 등의 시간적 구분에 따라 주기성을 갖고 각기 상이하게 전개되었다. 일상생활, 학업 및 생업생활, 여가생활에 대한 생활시간 구분이 비로소 생긴 것인데, 다음과 같은 배재학당의 하루 일과는 농경사회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시간개념을 잘 설명한다. 사람들은 공적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수업은 오전 8시 15분에서 11시 30분까지, 오후는 1시에서 4시까지로 하고--. 일요일은 모든 일을 쉬며--점심은 11시 45분에 마치고 저녁식사는 5시에서 6시까지 마치고, 해가 지면 제방에서 공부를 하여 밤 10시 이후에 등불을 끄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 편, 1979)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 신문화와 신문물이 더욱 거세게 밀려왔으며, 전통적 사회에서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었던 일상사의 균형과 질서는 더욱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모던보이, 모던걸의 활보 속에 남, 녀의 내외법은 사라졌고, 본격적으로 남편, 아내, 자녀가 중심이 되는 가족 단위가 형성되면서 공간의 사용도 재편성되었다. 사생활의 단위는 남, 녀의 분리가 아닌 결합 구도를 중심으로 상, 하 직계로 이루어지는 '가족' 위주로 형성되었고 그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렇게 가족의 사적 생활과 그 장이되는 공간이 뚜렷하게 형성되는 것은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공적공간"이 형성된 반대급부이기도 했다. 그것은 도시화라는 거대물결 하에 자본주의로 인해 상업공간과 여가공간이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과거 주거공간 주변의 생활공간이 근대화된 도시공간으로 전환된 것이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는 공적인 생활과 사적 생활이 주거공간 내에서 혼합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근대적 도시 구조 안에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는 주거라는 울타리를 경계로 명확히 설정되었다.

원래 조선의 도시공간에는 집회시설, 공연장 등 공공유흥장소라고는 전혀 없었고, 사회적 접촉의 기회도 주거공간 주변 외에서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들어온 서구식의 문화는 조선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습관, 그리고 일상의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일본의 소비문화가 급습한 경성의 거리에는 일본인 상점들이 불야성을 이루게 되었다. 원

래 방문판매를 선호했던 조선인들은 처음에는 이런 일본인 상점가의 상설 점포판매를 생소하게 여겼지만 점차 소비문화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갔다. 진고개에 즐비한 찻집, 빙수집, 우동집, 카페 등은 도시생활을 즐기는 장소가 되었다(노형석, 2004). 예전에 모두 주거공간 내에서 행해졌던 행위, 즉 사교, 오락, 휴식, 접대를 위한 기능적 공간들이 구락부, 카페, 공원, 요리집 등의 이름으로 도시 공간에 등장했으며, 집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그들의 하루에 주어진 상당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한편 급격히 산업사회로 전이되면서 공장, 사무실 등 농경사회에는 없었던 생계공간도 생겨났다. 공장직공으로서 피땀을 흘리며 햇빛을 못보고 질식할만한 공장에서 열 시간씩, 열두 시간씩 노동을 하는 남편과 집안에서 빈둥대는 아내의 모습 역시 새로 나타난 일상의 모습이었다. 남성들 역시 직장이 끝난 후 선술집 등에서 그날 받은 일당으로 술을 마셔버리고 오는 경우가 허다했으니, 결혼한 남성의 생활무대는 도시, 여성의 무대는 집안으로 이분화 되기 시작했다. 도시화라는 거대물결 하에 자본주의로 인한 상업공간이 형성되고 여가공간이 생기면서 주거공간 주변의 생활공간은 근대화된 도시공간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3) 신가정의 탄생과 주거기능의 독립

한편 일제강점기의 후반은 전시체제 하에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로써 도시공간과 가정과의 분리는 가속화되었다. 40년대에 이르면 재래의 가족형태와는 다른 이른바 신가정이 탄생했는데, 이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생활의 단위가 생긴 것이다. 상류주택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이루는 생활과 남성들과 그 남성의 친구들 및 외부인이 이루는 생활로 분리되었던 주거공간 사용의 규범이 깨어지고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기 시작한 것이다. 신가정에게 집은 가족의 단란한 공간으로 정착, 형성되어갔다. 이때의 가족은 대가족의 개념이 지속되어 '단란한 가족'의 범주에는 친척조카 등 친족 까지 포함되었다. 잡지「삼천리」의 '즐거운 나의 가정-신가정의 향기'에 소개된 음악가 계정식씨 집과 여배우 김신재씨 집은 식탁을 둘러싼 평화로운 저녁식사시간과 단란한 하루의 일상을 소개하고 있다.

"저녁이 다-되여서 진지그릇 뚝정까지 열어 놓고 貞香이가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심부럼을 한 두세 차례 하여야 그제서야 안방으로 들어온다. 할머님을 爲始하여 어린애 아버지나 貞香이 貞雄이 또 지금같이 와 있는 족하 順愛 둘러앉는 圓卓이 버려진다. 貞雄이는 죽을 먹여서 좇아 낼려면 한 씨름 하여야 한다. 그애까지도 인제는 食卓에 참례하여 이것저것 먹이라고 손꾸락을 비치고 요것저것 가라친다. 貞香이는 무엇을 지져귀고 종알거린다.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세음이다. 食事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書齋로 달려간다."(삼천리, 1940년 제12권 제10호)

"시아버님은20餘年 前 옛날에 돌아가시였고 홀노 아들딸을 더리고 늙으신 시어머님과 仁慈하시고도 細密하신 아즈머님과 형님 그리고 高等女學校에 다니는 족하와 우리 두리 그리고 지금 한참 말 배우노라고 어른이 하는 말은 다 숭내내는 아양꾸럭이 두 돌을 맞이하려는 내 딸! 이 일곱명이 우리집안 食口입니다." (삼천리, 1940년 제12권 제10호)

4) 간소화되고 합리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이상과 "홈, 스위트 홈"의 환상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주거 내 기능이었던 가사노동, 병과 죽음에 대한 보호, 아동교육 등은 병원, 학교 등 사회적 인프라의 등장으로 주거로부터 점차 떠나 전문화되었고 주거의 기능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개인, 또는 가족 및 공동체 단위로 통제되었고 모든 가능한 삶의 행위가 일어났던 생활공간이 단지 가족을 위한 사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일상사의 많은 기능들이 주거 밖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비정기적 일상은 주거공간 내에서 행해져 왔다.

70년대의 정치적 상황, 즉 군사독재 하의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경직되었으며, 이것이 일상에까지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이 시기는 경제개발 시기로, 개인의 생활보다는 국가사회의 이익이 더욱 우선되었던 것이다. 근대화과정에서 '합리성'이라는 패러다임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는 계몽을 통해 확산되었는데, 주거공간에서 행해지는 비정기적 재생산기능, 예를 들면 전통적 제례, 혼례, 상례 등은 구태의연한 전근대적 산물로 취급되었고 허례허식이라고 폄하되어 간소화, 합리화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압력은 주거공간을 최대한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하는 합리적 공간으로 재편성하는데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리하여 주거공간 내에 남아있게 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사밖에 없게 되었다. 비정기적 일상사에서 공유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난 후 가정 내 각 가족구성원의 생활행위도 거의 완전히 분화되었다. 특히 도시사회에서 가장은 직장에, 아동은 학교에 나가고, 주부는 가사를 돌보는 식으로 일상의 행위는 분리되어 전통적인 농촌사회에 있어서와 같이 가장의 권위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일상이 주기적 생활패턴을 형성하게 된 후 온 가족이 공유하는 시간은 주말이나 저녁시간 뿐이었지만 이 마저도 집밖에서 각자의 여가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빈번해졌다. 왜냐하면 주거 내 비정기적 일상의 기능들이 축소되었을 때 사람들에게는 진부한 일상을 대신할 그 무엇이 새로이 필

요했고, 그것은 보통 집 밖에서의 각종 여가생활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성장과 생산의 시대에 '근대화'로 대변되는 사회적 개발의 선두에서 사회에 귀속되었으며, 사회와 가정은 이분법적으로 단절되었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남성은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아침에 집을 떠났다가 저녁 때 들어오는 생활패턴을 반복했다. 따라서 집은 여성이 안주하며 홀로 지키는 공간으로 변했다. 주거는 일상을 떠났던 가족이 돌아왔을 때 최대한 아늑하고 단란한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했다. 또한 이웃도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았다.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은 약속이 되어야 왔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전화라도 하고 왔다. 예전에 불쑥불쑥 찾아왔을 때는 격식 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괜찮았지만 근대적 '스위트 홈'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이웃의 방문이 더욱 형식적인 것이 되면 될 수록 집안은 늘 정돈되어 있어야 했을 뿐 아니라 가족의 화목과 단란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의식은 7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대와 함께 생활의 여유가 생긴 후에 주부들의 집 꾸미기라는 새로운 유행을 불러왔다. 이제 집은 더 이상 생리적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 등 하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주택은 가족의 단란함을 표현하고 주부의 안목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으므로 주부들은 집을 가꾸고 이를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개성과 기호, 정체성을 표현하고 과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잘 가꾸어진 스위트 홈이 빈 둥지와 같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5) 주거공간 외에서의 생활공간 형성

90년대 이후 현대 한국사회는 경제적 풍요와 함께 첨단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다. 정치적 민주화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었고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또한 사회가 다변화되고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바쁜 일상으로 변화하면서 주거 내의 비정기적 일상사는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가족 이외에 나날이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은 더욱 복잡해졌으며, 이것은 과거 이웃간, 그리고 친족 간에 행해졌던 교류의 일상을 대신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교류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기능이 가장 약화된 곳은 산업화시대에 가족의 단란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었던 거실공간이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들은 주거공간 내 각자를 위해 마련된 개인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컴퓨터, 개인전화 등의 등장으로 집밖의 사회적 영역과 직접 소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족구성원들이 집을 떠나있는 시간이 많고, 특히 일상의 여가가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빈번해진 이후 집은 거의 잠만 자는 곳으로 변화했다. 또한 생일, 기념일 등의 가족모임 등과 같은 비정기적 비일상의 교류의 기회도 집이 아닌 곳에서 행해지게 되었다. 또한 주거 내 일상사 중 가사 노동과 관련된 부분도 큰 변화를 겪었다. 세탁소나 청소대행업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장보기 등을 하면서 오늘날의 가족생활은 필요한 많은 부분을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외식이 빈번해졌고, 반가공식품을 이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거공간의 기능이 줄어들고 평균 가구원수도 계속 줄어든 상황에서도 지난 수 십 년 동안 한국의 주거공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2000년의 1인당 주거면적은 1970년과 대비하여 거의 세 배가 늘어났다. 기능이 빠져나갔고, 가족들이 머무는 시간도 별로 없으며, 누구도 별로 찾아오지 않는 넓은 빈 공간이 오늘날의 주거인 것이다.

2. 주거공간의 기능화 담론으로 본 주거 내부 공간의 분화 및 개별화

1) 다기능 공간으로서의 방

조선시대 전통 서민주택에서 방은 거의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서민주택에서는 한 공간에서 취침, 식사, 사교, 생리위생 기능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일반적으로 방에는 가구나 장식물이 놓여져 있지 않았는데(A. H. Savage-Landor, 1895, in: 신복룡, 장우영 역주, 1999), 규모가 작은 집이거나 단칸방일 경우에는 좁은 방에서 모든 일이 이루

<표 2> 주거공간의 규모증가와 거주인 감소를 보여주는 지표(대한주택공사, 주택핸드북, 주택통계편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종합하여 재구성)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평균 가구원수	5.24	5.0	4.5	4.1	3.7	3.3	3.3
가구당 주택면적(m^2)	35.9	41.4	45.8	46.4	51.0	58.9	63.1
1인당 주거면적(m^2)	6.8	8.2	10.1	11.3	13.8	17.1	20.2
1방당 거주인	2.4	2.3	2.1	1.8	1.5	1.1	0.9
가구당 사용방수	2.2	2.2	2.2	2.2	2.5	3.1	3.4

어졌다. 길이가 2.4 - 3미터 정도이고 높이는 약 2미터 남짓하여 마치 작은 상자와 같이 작은 방의 벽 둘레에는 천정 가까이 넓은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위에는 잡다한 가정용품, 겨울채소, 막걸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누룩덩어리들 등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올려놓았다. 예를 들면 먼지투성이의 고서, 바구니, 그리고 다림질에 사용되는 나무받침대와 방망이, 약병, 밥그릇 한 벌, 성냥갑 등등도 방안에 있다는 기록을 보면 많은 일상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L. H. Underwood, 1880, in: 신복룡, 최수근 역주, 1999).

각 영역에서는 공간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예들 들어 안방에서는 접대, 단란, 휴식, 육아 등 공적, 사적 생활이 동시에 행해졌고, 인접한 건넌방, 웃방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었다. 공적성향이 강한 사랑방도 사적공간인 침방 등과 상호 융통성을 갖고 있었다. 특히 반외부공간인 대청은 인접 공간과 강하게 연계되었다. 문은 필요에 따라 완전히 개방하여 공간과 공간, 즉 방과 대청, 또는 방과 외부공간을 터 줄 수 있었다. 즉 전통 한옥에서 사용자 규범에 따른 공간간의 사회적 분리는 강했지만 분리된 공간 내에서 물리적 분리는 상당히 약했던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공간이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변화는 비단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의 소멸과 등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의 공간은 사용상의 명칭변화로 그 내용상에서, 기능상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방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안방, 건넌방, 사랑방으로 구분되었고 이것은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양반집의 경우에는 안채와 사랑채에는 침방이 따로 있어 취침의 기능이 분리되기도 했다. 그러나 양반집에서도 배설 및 위생 행위는 방에서 이루어져, 야간에는 물론 때로는 주간에도 안방 옆의 골방이나 사랑채의 침방에 요강을 비치하고 여기에 소변을 보았고, 요강을 비우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 세수간이나 목욕간도 따로 짓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는 부엌 앞마당이 세수간이 되었고 남자 주인은 사랑채 앞 기단에 세숫대야를 놓고 세수를 했다(주남철, 1999). 겨울에는 하인들이 방 안으로 더운물을 데워서 바치곤 했다. 이렇게 방안에서 세면을 하던 습관은 일제강점기까지도 이어졌는데, 어떤 젊은 부부의 사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철없는 모던걸이었던 어떤 젊은 아씨는 안잠자기가 아궁이에 불 지피기와 아침식사준비를 모두 할 때까지도 일어나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려고 세수하고 안방으로 건너오면 그때 다시 안잠자기를 시켜 안방으로 양치물을 떠오게 하여 솔로 양치질을 하고 같이 아침식사를 했던 것이다(별건곤, 1931년 3월).

2) 주거공간 내의 과도기적 기능 혼재

물론 일제강점기의 상류계층의 주택이었던 문화주택에는 각 기능별로 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침실, 식사실, 주방 등 새로운 이름이 붙여진 실들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모두 그 실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중심으로 명명된 것이다. 즉 각 공간은 이름이 붙여진 대로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당시 박길룡, 김유방 등 선구적인 건축가들은 합리적인 주거개선과 생활개선을 끊임없이 주장했고, 사람들에게는 서구적인 실사용이 좀더 문화적이고, 세련되고, 합리적인 생활방식인 것으로 각인되었다. 김유방은 '문화생활과 주택'이라는 글에서 우리 주택의 큰 결점은 이미 아무 필요가 없는 내, 외실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못 혼돈되어 침실이 식당도 되고 식당이 객실도 되는 것이라 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침구 같은 것이 실내를 장식하는 자랑거리가 되어 욕심 많은 부인들이 쓸데없이 오색 침구를 첩첩이 쌓아놓고 이것으로써 客을 대하는 체면치레를 하는 것이 참으로 고쳐야 할 습관이라 하였다(개벽, 1923년 2월). 그러나 이러한 관행을 타파한 문화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도 전통적으로 내려온 한옥에서의 생활이 보편적이었고 방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보통이었다.

전통 주거공간의 대청에서는 제례 등 비정기적인 일상사가 수행되었다. 대청에서는 여름의 휴식 외에는 그다지 많은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화기 이후에는 그 공간의 효용에 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합리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생활의 격식이 많이 타파되었을 때, 대청에 온갖 생활의 잡다한 행위들을 끌어들이게 되었다. 특히 대청은 부엌과 인접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식사준비를 대청에까지 나와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간이 협소할 경우나 형식적인 생활의 규범에 그리 얽매이지 않았던 서민주택에서는 공간 간의 기능적 경계가 부정확하여 각 공간의 기능들은 인접 공간으로까지 침투하고 확산되기도 했다. 과거 대청은 한옥의 공간 중 비교적 단일 기능이 부여되었던 곳인데, 일제강점기에 와서는 오히려 여러 기능들이 혼재한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대청의 기능이 복잡하게 변화한 것은 단지 식사준비를 그곳에서 하게 된 것뿐 아니라 손님접대의 기능까지 했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도시형 한옥의 평면을 보면 부엌으로부터 안방으로 문이 달려있어 음식을 방안으로 가져오게끔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부엌에서부터는 대청까지 조그마한 툇마루가 연결되어 음식을 바로 나를 수 있는 또 하나의 동선도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청에서도 식사를 하고 손님을 접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사랑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곳은 대부분 마루가 되는데, 따라서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어쩔 수 없이 마루에서 쌀을 꺼내다가 물독 혹은 우물 있는 마당에서 씻어서 솥 걸린 부엌에서 끓이면서 또한 마루 끝에서 찬장에 들락날락해 가며 찬을 갖추어 대접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냄새와 추태를 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수고를 허비할 수밖에 없어서 그에 대한 비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별건곤, 1928년 12월). 어쨌든 이 시기 대청마루는 거의 비워진 공간이 아닌 사용되는 공간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주택 안에서의 손님접대 기능이 안방이나 사랑방으로부터 옮겨짐으로써 방은 복잡한 기능 중 하나를 분리시키게 된 것이다. 대청의 기능이 새로이 형성되면서 일상의 번잡함을 외부인인 손님에게 보이지 않고 형편이 된다면 소박한 장식도 할 수 있겠다는 의식이 점차 생기기 시작했다. 어수선한 집안사의 치부를 남에게 보이는 대신 이 공간이 손님접대 공간이 된다면 벽에는 좋은 그림을 걸어놓고 조그마한 탁자를 놓고 그 위에 꽃병 하나쯤은 좋아서 집의 운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하여(별건곤, 1928년 12월) 보여주는 공간으로 대청이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서울지방의 경우 대청의 모습은 상당히 복잡한 풍경을 연출했다. 서울 여자들은 마루세간 자랑하는 것을 제일로 쳤다는데, 마루에는 될 수 있는 데까지 세간을 많이 진열하여 어지간한 집이라면 으레 찬장, 뒤주 등을 즐비하게 벌려놓았으며, 그 위에는 또 목판, 항아리, 대접, 접시, 유리병과 유리그릇 등을 올려놓아 마치 목물전이나 사기그릇 가게 같이 보일 정도였다(별건곤, 1932년 3월).

3) 기능의 분화

전쟁 후 합리적이고 근대화된 주거를 표방하며 지어진 국민주택은 아주 간단한 공간구성을 보이는데, 핵가족 위주로 각 실의 기능이 완전히 재편성된 것이다. 특히 '안방'과 같은 공간의 명칭은 사라지고 모든 공간이 동등하게 '침실'이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그 곳에서 수행되어야 할 기능을 명확히 정해주었다. 그러나 국민주택에서 정작 각 공간의 명칭대로 주거생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은 평면의 구성에서 금방 드러난다. 부엌은 거실과 거리상, 동선상 완전히 격리되어 애초부터 부엌살림을 거실로 끌고 들어올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대신 부엌에서의 조리행위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찬마루가 대부분 계획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찬마루가 침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찬마루가 방으로 식사를 나르기 위한 동선까지 흡수한 것인데, 이는 침실이란 명칭에 무색하게 일상적인 식사가 방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루를 보면 음식준비까지 했던 공간인 예전의 대청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전체 공간의 규모에 비해 너무 작게 할당되었으며, 손님접대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부엌으로부터 찻상 하나도 가져오기 어렵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방에서 거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전체 공간규모가 협소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주택에 대한 수요를 채우기에도 급급했던 50년대까지도 합리적 주생활에 대한 이상은 말 그대로 이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60년대 초 서구의 생활양식을 전제로 한 아파트의 도입은 과거의 생활양식에 변혁을 가져오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 내 기능분리는 가속화되었다. 최초의 아파트인 개명아파트로부터 그 후의 마포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에서는 처음부터 '자는 공간'으로서의 방의 기능을 더욱 강조하여 방에 대해 침실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마포아파트의 경우 거실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할애하고, 부엌도 거실과 직접 연계되도록 계획된 것은 서구식 생활을 지향하도록 한 의도였다. 그러나 아파트가 등장한 초기에 내부공간은 개인생활 공간과 공동생활 공간이 강하게 연계된 구성을 보여 일상사의 가정 내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평 내외의 소규모 단위주호에서는 거실의 구분조차 없고 침실로만 내부공간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부엌은 재래식 부엌의 개념으로 고립된 공간으로 계획되었고 식사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식침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70년대에 이르면 주거 내부에서 각 공간에서의 기능의 분리, 즉 식침분리가 아파트 평면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정착되기 시작했다. 식침분리가 쟁점이 되면서 안방과 거실은 그 기능에 있어서 항상 갈등의 구조에 있어왔는데, 이 시기부터 비로소 거실영역이 점차 뚜렷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이다. 각 개인을 위한 침실 등의 사적 생활영역이 가족이 일상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거실, 식사실 등의 생활영역, 즉 공적 생활영역과 뚜렷이 분리되어 각 실은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각 단위주호의 규모가 커져 분화된 기능을 수용하기에 무리가 없게 된 것도 이러한 현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부엌은 다른 공간이 단일 기능을 수행하도록 변화하고 독립적 공간으로 변화한 것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다기능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파트 도입 초기의 부엌이 거주공간과 분리되어 배치되었던 것과 달리 80년대 이후에는 점차 가족 공동공간에 인접되어 배치되고, 또한 폐쇄적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거실, 또는 식사공간과 연계되어 구성되었다.

4) 기능분리의 가속화

기능분리 현상은 90년대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생활이

향상되어 주거 내부 공간의 규모는 커지고 실의 수도 늘어났지만 그곳을 점유하는 사람의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는 실들은 분화되는 또 다른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수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침실 외에도 서재, AV룸, 가사실 등이 생겨난 것이다. 욕실도 한 주거공간 내 여러 개가 생겨 가족구성원들이 분리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욕실에 부속된 파우더룸, 드레스실도 등장했다. 거실공간도 가족공동 생활의 기능과 접대의 기능을 동시에 수용하던 것으로부터 두 기능이 분리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사례가 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다. 주거공간 내에서 가장 중심의 위치에 가장 넓게 자리잡은 거실은 외부에 보여주는 공간으로써 접대와 체면치레의 공간으로 남아있고, 가족이,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들이 공동으로 친밀하게 사용하는 공동생활공간은 좀 더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가족실" 이란 개념으로 분화된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생활의 개념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는 공간인 욕실의 경우도 가족이 당연히 공동으로 사용하던 개념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변화해갔다. 7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의 아파트에서는 안방에 딸린 부부욕실이 등장했다. 단위세대 내에서 욕실 개수의 증가하는 현상은 점차 하위의 주거규모에도 전파되는 전형적 과정을 보인다. 상위계층의 주거설비에 대한 모방심리로 부부욕실은 80년대 중반부터는 30평형대에서도 보편적으로 확산되었으며, 90년대 후반부터는 20평형대의 아파트에도 두 개의 욕실이 배치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상류계층, 즉 이보다 더 대형규모의 주거공간에서는 욕실이 세 개 나타나는 경우가 90년대에 나타났다. 부부용 욕실뿐만 아니라 자녀용 공동욕실, 손님용 욕실 등으로 점차 분화된 것이다.

3. 사적공간의 소외담론과 사적 욕구의 해결수단으로서의 주거

1) 불분명한 사적 경계

개인의 사적 생활을 중요시하는 서구식 생활방식이 본격적으로 조선사회에 전이되기 이전 암묵적으로 설정되었던 사생활의 범주와 그 공간적 경계는 매우 복잡했다. 개항 이후 도시화와 사회계층의 변화가 진행되었지만 주거공간 내에서 전통적 의미의 사적인 생활과 그 공간의 사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선의 주택이 높은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이웃의 마당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었던(G. W. Gilmore, 1892, in: 신복룡 역주, 1999) 전통적 구조는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생활의 보호"라는 측면해서 종종 이해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주택은 외부에서 보면 매우 폐쇄적이지만 대문을 열고 나면 모든 공간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개방적이었다. 그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적 경계는 내부공간을 둘러싼 벽체가 아니라 담장까지 연장되었던 것이다. 또한 외부로 열린 많은 개구부로 인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은 경계가 모호하여 내부공간이 곧 사적 공간을 형성하는 이분법적인 규정은 여기서 해당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관념은 핵가족단위의 가족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의 개념으로, 남, 녀 각각 다른 영역에서 영위했던 사생활이었다. 철저한 내외관념 하에 남, 녀의 공간은 분리되었고 종족보존이라는 생리적, 육체적 관계 외에 부부간에 사적으로 일상사를 영위하는 사생활,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는 사생활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여성의 공간인 안채는 대문간으로부터 깊숙이 자리 잡았고, 특히 안방은 가장 안쪽에 위치하여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웠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어떤 남자도 안방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반면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는 물리적인 공간 경계의 강, 약과는 상관없이 심리적으로는 외부에 전적으로 개방되어 있었다. 남성의 공간에 약하게 사적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객(客)'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랑채에는 어떤 남자도 들어올 수 있었으며, 낯선 그들은 그곳에서 즐기며 먹고 자기도 했다(L. H. Underwood, 1880, in: 신복룡 외 1인 역주, 1999). 조선의 양반들에게 두려운 것은 '인심이 사납다.'는 식객들의 험담이었으며, 체면상 그것은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방문한 곳이 설사 가난한 집이었더라도 여행객들은 누구냐를 불문하고 최소한 음식과 마실 것은 대접받을 수 있었다(A. H. Savage-Landor, 1895, in: 신복룡 외 1인 역주, 1999). 조선인들은 남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푸는데 그러한 사실은 외국인들에게도 역시 똑같았다. 개항기 조선 땅을 여행했던 외국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간파했으며, 그것을 잘 이용하기도 했다. 경험자들은 "만약 그때 당신이 밤을 지새울 보금자리가 없다면 당신은 속편하게 가장 훌륭해 보이는 집 대문을 두드려야만 한다. 숙식을 부탁하는 즉시 당신은 밤을 보낼 수 있는 숙소와 수북한 쌀밥을 기꺼이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다."(A. H. Savage-Landor, 1895, in: 신복룡 외 1인 역주, 1999)라고 충고했다. 그들은 더 좋은 숙식이 기대되는 어느 다른 부잣집으로 거처를 스스로 옮길 때까지 그 집에서 몇 달 동안 머무를 수 있었다.

2) 거리로 확장된 사생활

도시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전통적인 공간의 물리적 특성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구한말 이미 상당히 과밀했던 한성의 경우 서민주택은 담장으로 둘러쳐진 넓은 마당을 갖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주택은 담 없이 거리에 바짝 붙어 건물이 담장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경계가 사생활을 한정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내부공간의 연장이었던 울타리 안의 외부공간이 마당이 없으므로 인해서 거

리까지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뒤죽박죽으로 왜소하게 만들어진 오두막집들이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꼭 붙어있어 마치 대문이란 것이 없고 이집 저집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환경에서 좁은 집안은 어둡고 무더우며 습해서 대부분의 집안일은 노상에서 하는 형편이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부엌에서 불을 때는 동안 찜통 같은 방안에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집 앞 땅바닥에서 시간을 보냈다. 길거리는 취사공간이기도 했으며, 거리로 노출된 평상이나 툇마루에서 밥을 먹고, 쉬고 담배피우며 담소하는 광경은 흔히 볼 수 있었다. 남정네들은 긴 담뱃대를 입에 물고서 허물어진 흙담벽에 기대서 웅크리고 앉는 채 장기를 두거나 투전놀이를 했다(김영자, 1994). 여자들은 문간 밖에서 뜨거운 국을 끓이거나 빈대떡을 부치고, 남자들은 반죽하고 있는 모습도 당시의 풍경이었다(G. W. Gilmore, 1892, in: 신복룡 역주, 1999).

상류주택의 엄격한 공간사용 규범에 비해 서민들에게는 내외법도 없었고, 사적 경계도 없었던 것이다. 거리는 어린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했다. 수많은 아이들이 발가벗은 채 골목에서 뛰어 놀고, 행인이 지나가거나 말거나 급한 용무를 마치는 것은 예사였다. 서구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가족의 사생활이 보장된 단란한 주거의 모습과 당시 조선의 서민주거의 모습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H. B. 드레이크(H. B. Drake, 1930, in: 신복룡, 장우영 역주, 2000)의 기록에 의하면 청명한 조선의 날씨에서는 집은 우기나 동절기 동안의 거처 이상이 아니며,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특히 여름에는 거리에서 요리하고 잠을 잤다.

그렇다면 정작 가족구성원들이 주택 안에서 부대끼며 사는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그것 역시 상류계층과 서민이하 계층과는 가족의 수에서,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상류계층은 대부분 대가족을 이루었으나, 대체로 병약하여 직계자손의 수는 매우 적었다. 반면 건강했던 하류계층은 자식을 많이 낳았고, 대체로 핵가족을 이루었다. 이들은 내외할 것도 없는 좁은 집에서 온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지냈다. 그나마 온 가족이 난방이 잘 된 방바닥에서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완벽한 풍요를 누린다고 할 수 있었다(H. B. Drake, 1930, in: 신복룡 외 1인 역주, 2000).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초가삼간의 서민주택이나 양반집의 가랍집 등에서는 부엌 쪽의 아랫방에서는 안주인과 여아들이 취침하고 윗방에서는 바깥주인이 남아들과 함께 취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부엌 한 칸, 방 한 칸의 초가거나 양반집의 솔거노비의 경우에는 한 방에서 여러 식구가 취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주남철, 1999)

3) 주거공간 내의 노출된 사생활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도시의 공공공간 이면에는 사적 공간이 자리 잡았지만 그때까지도 울안으로 들어온 사생활은 핵가족만의 것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등장한 신흥 부유계층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행랑식구나 안잠자기, 서생 등 여전히 다른 식구들과 섞여 살았다. 1922년경의 평균 가족 수는 부부와 자녀 합하여 4,5인이어서 잘사는 집에서는 주거공간이 식구에 비해 여유가 있었다(개벽, 1922년 6월). 큰 한옥의 행랑에는 주로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올라온 행랑가족이 기거했는데, 부인은 집안일을 해주는 대가로 주인집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남편은 인력거꾼 등으로 하루하루를 벌며 독립적인 가계를 이끌었다. 주인집과 행랑가족 사이에는 서로의 생활을 훤히 들여다보며 살았다. 갓난아기를 업은 행랑어멈이 저녁끼니가 없어 걱정할 때 안주인은 인심 쓰듯이 먹다 남은 밥상을 물리며 아이들과 안채에 들어와서 그것을 먹으라 하기도 했다. 주인집 사람들로부터 온갖 구박을 받는 행랑자식은 굶어도 좋다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래도 먹으라는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행랑채와 안채 간에 벌어지는 흔한 풍경이었다(도향, 1923, in: 개벽, 1923년 10월).

한편 안잠자기란 안채에서 주인마님, 또는 아이들과 같은 방을 쓰면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의 사소한 가사까지 함께 하는 역할을 하는 젊은 여자였다. 이들에게 주인집 사람들의 사생활은 더욱 가까이 노출되었다.

"주인영감이 못 오겟다는 전화가 오는 날이면 나는 靑木堂으로 피파멘트(靑酒)와 우이스키를 사러가야 합니다. 사 가지고 와서는 스끼야끼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밤이 깁허 자정이 되면 주인마마는 살그머니 사랑으로 나아가서 서생을 끄을고 들어옴니다. 구수한 스끼야끼를 지지면서 권커니 밧거니 피-파멘트와 우이스키잔이 남녀의 손에서 놉니다.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건넌방의 그 거동을 눈으로 보듯이 듯고 잇슴니다. 여러분도 상상를 하여 보십시요. 큰방에서는 피-파멘트에 土氣된 남녀가새파란 청소년과 늙어빠진 中老婆가 음탕한 이약이를 주고 바드며 새빨간 제병이불을 그러덥고 누엇고..... 그들은 조곰도 쥐위를 거릿기지 아니하니 하고 소리를 지를 경우이면 소리를 지르고 숨을 크게 쉬일 경우이면 숨을 크게 쉬임니다." (별건곤, 1930년 1월)

한편 대가족제도 내에서도 부부중심의 사생활개념은 차츰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주택의 물리적 조건들과 갈등이 되어 나타났다. 당시 문화주택에서 얄팍하게 형성된 벽체, 그리고 장지문이나 분합문은 공간과 공간을 시각적으로만 차단해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문화주택에서는 대가족제도를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부모와는 불편해서 못살겠다는 푸

념을 하기 일쑤였다(춘추, 1941년 8월).

4) 개방적인 사적공간

전쟁 직후부터 60년대까지는 파괴된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신속한 개발을 위해 발달된 건설기술이 도입되었고, 서구적 근대화를 표방하는 생활의 변화는 한옥이 아닌 소위 '양옥'의 도입을 합리화하였다. 이때 정비된 단독주택지에 깔끔하게 지어진 집들은 부모와 자녀가 살기에 꼭 적합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었으며, 바야흐로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보금자리처럼 보였다. 이러한 단독주택에서 울안의 공간은 한 단위가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대문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항상 열려있었다. 같은 동네에서는 골목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일상사를 영위하는 공간이 마을, 골목까지 확장되었다. 아이들은 이집, 저집 다니며 놀았고 낮에는 아낙네들이 골목 앞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60년대 최초로 보급된 TV는 온 동네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수단이었다. 아이들은 저녁나절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라는 엄마들의 성화가 있을 때 까지 남의 집 마루에 눌러 앉아 TV를 보았다. 뿐만 아니라 저녁을 먹은 후 온 식구가 이웃집으로 '마실'을 가는데, 같이 TV를 보거나 수다를 떨거나, 놀거나 하는 일이 보통이었다. 주거공간은 곧 공개된 사생활의 공간이었다.

60, 70년대 도시 과밀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 이르자 한 가족이 하나의 주택에서 살게 되는 이상적인 주거의 모습은 조금씩 변질되어 갔다. 왜냐하면 주택은 늘 부족하여 셋집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시대 도시근로자들 대부분의 주거가 이러한 셋집의 형태였다. 셋집의 주거수준을 보면 2가구가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4가구 이상이 사는 주택도 10%나 되었다. 또한 셋집의 규모는 반수 이상이 5평이하였으며, 1실 임차가 63.3%나 되었으니 말 그대로 단칸셋방이 대부분이었다(임창복, 1984). 셋집에서는 부엌은 개별적으로 사용했지만, 화장실, 수도, 외부 공간 등은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인집과 같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거실을 통해 셋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한 집 살림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기저기에서 부부싸움 하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로 시끌벅적했고 누구 집이던 서로의 집안사정을 훤히 꿰고 살았다. 그러다가 80년대는 셋집의 형편도 조금 나아져서 2층 한개 층을 셋집이 온전히 쓰는 경우가 생겼다. 대문과 현관은 초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분리되는 경향을 보여, 사생활을 서로 보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한 가족이 사용하는 주거 내부공간도 가족구성원들끼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부모와 아동이 같이 쓰거나 또는 시골에서 공부하러 올라온 친척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여러 아이들이 한 방에서 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아이 방이 따로 없어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 75년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서는 방 하나에 평균 3명이 살고 있었고, 심한 경우 10명 이상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경향신문, 1975년 7월 12일). 70년대까지 이어진 이러한 극심한 과밀의 상태에서 서민들에게 사생활이란 요원한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단칸셋방살이를 회상하는 어느 주부의 글을 보면 그 실태가 잘 나타난다.

"월3만원 짜리 사글세방 하나를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방이 워낙 작아서 이불과 짐을 놓고 보니 앉을 곳이 없기에 할 수 없이 가구점에 들러서 장롱과 찬장을 20만원에 들여놓고 정리를 했더니 둘이 자면 꼭 맞고 셋은 좁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퇴원해서 집에 돌아와 애기를 방에 뉘이고 나니 좁아서 다른 사람은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잠잘 때도 아빠는 누워 자고 내가 앉아있으면 딱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새우잠이라도 자야 했습니다. 한번은 밤중에 잠결에 들으니 애기가 너무 아파서 목이 메어 울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아빠 발이 애기 배위에 걸쳐져서 하마터면 큰일날뻔 했습니다."(현대주택, 1986년 5월)

5) 아파트의 도입과 일상생활에서의 마찰

사생활이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하고 협소한 주거공간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급속히 보급된 서민아파트에서 더욱 많이 볼 수 있다. 내부 공간은 매우 협소하여 아동들은 형제끼리, 자매끼리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했다. 70년도의 인구주택센서스에 의하면 전체 아파트 중 76.4%가 방 두개 규모였다. 당시에는 전쟁 후 베이비붐이 일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의 수는 일제강점기 때보다도 많아 주택당 평균거주원 수가 5.24명이었다. 이때 한 방이 부부침실 겸 안방으로 사용되면 나머지 한 방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녀가 많으면 나이 어린 자녀가 안방에서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것은 보통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의 생활도 항상 부부와 자녀 외에 항상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이었다. 자식들과 함께 살겠다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부모가 함께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로 학교를 오게 되거나 직장을 잡게 된 시동생과 시누이는 으레 서울에서 이미 살고 있는 형, 오빠 집에서 얹혀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파트라도 전통적 통념상 형편에 따라서는 대가족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대가족의 문화가 서민아파트라는 좁은 공간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과도기에는 절충의 여지도 없었고, 그 갈등은 거의 극대화되는 상황이었다. 조부모와 아동이 같이 쓰거나 또

는 시골에서 공부하러 올라온 친척과 같은 방을 쓰는 것은 다반사였다.

대가족 하에서 남녀가 유별하여 어차피 부부간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전통사회에서 사생활에 대한 욕구는 표출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공간구조에서도 원천적으로 갈등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부부가 한 방을 쓰는 것이 당연시되기 시작하고 부부간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이 타파되기 시작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욕구는 공간적 욕구에 이르게 되었다. 좁은 아파트에서 노인과 함께 사는 경우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핵가족을 전제로 설계된 아파트는 현관문을 닫으면 가족만의 사생활이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지지만 막상 내부공간에서는 형식상 거실 뿐인 작은 공간이 각 방으로 통해 있고 2-3개의 방은 아주 작아, 다른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부적합한 공간이었다(여성동아, 1987년 1월).

"동대문구 장안동의 13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던 85년 당시 30대의 주부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연년생 남매를 두었는데, 5남매 중 맏이인 남편을 만나 살아오면서 단칸방을 면한 이후 85년까지 7년 동안 줄곧 시누이 아니면 시동생과 함께 살아야 했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편두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집이 좁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벽 하나로 붙어있는 방 두 칸은 차라리 한 방이나 다름없어 부부생활은 물론이요, 사생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여성동아 1987년 8월호에서 재구성)

"결혼 7개월 만에 11평 아파트에서 시동생과 함께 살아야 했던 또 다른 젊은 부부는 낮에 짬을 내서 여관에 들어가기도 했다. 말이 방 두칸이지 벽 하나 사이로 말소리는 물론 옷 벗고 입는 소리조차 모두 들리는 형편이다 보니 아내는 자꾸 잠자리를 피했고 택시기사였던 남편은 궁리 끝에 집밖에서의 밀회를 계획했던 것이다."(여성동아 1987년 8월호에서 재구성)

이러한 갈등은 삼대가 동거하거나 친인척이 같이 사는 문화가 거의 사라지고 주거 면적이 늘어나면서 해소되기 시작했다(표2 참조).

6) 사생활 지상주의

70, 80년대의 주거는 대부분 핵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왔고 친척 및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문화도 사라졌다. 80년도의 핵가족 비율은 68.5%에 이르게 되었고, 1세대 및 단독가구의 비율도 13.1%에 이르게 되어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 가구원수도 4.5명으로 거의 핵가족이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2). 아파트 주거문화도 확산되어 전체 주택 중 특히 서울에서는 아파트의 비율이 38.6%에 이르게 되었다(통계청, 1980). 이때 아파트에서의 공유공간은 단지 통과의 성격을 지닌 익명의 공간이므로 거주자들은 이웃과 함께 하는 공유공간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가족들만의 공간인 개별주호 내부에 관심을 집중했다. 아파트의 단위세대는 개별화가 진행되어 단위가족을 위한 개인적, 사적 공간을 담보했으며 사생활의 보장은 근대적 주거공간이 수행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익명의 공적 공간에서 사적인 가족공간으로 전이되는 것은 오로지 현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현관은 잠그기만 하면 외부와의 소통 경로가 철저히 차단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곧 아파트 주거환경에서 '우리'의 범주에 드는 중립적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의 일상사에서 집단지향적 성격(이광규, 1997)이 매우 약화되는 현상이 공간구성으로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가족의 성역이 된 아파트는 외부로부터의 사생활 침해를 차단하는 공간적 장치들을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주거 면적이 늘어나고 실이 증가하는 80년대 이후 중, 대규모 아파트 평면에서는 현관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 잡게 됨으로써 주거공간은 외부로부터 차폐되었다. 따라서 외부와의 시각적, 물리적 연계는 더욱 멀어지고 주거 내부공간은 의도하지 않으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렇게 주거공간이 가족만의 사적 영역으로 변화한 가운데, 사적 영역 내에서도 개인공간은 개인만의 사적 영역으로 다시 분화되고 내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8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즉 개인주의를 그 기본적 관점으로 삼고 있는(권희영, 2001) 근대의 체제 하에 거주원의 일상사는 점점 독립적으로 변하고, 이에 따라 공간도 재편성된 것이다.

이러한 "분화의 과정"은 근대화의 대표적 상징으로, 생활체계가 분화되는 것, 내적사회로 분화되는 것, 그리고 생활세계가 합리화되는 것(정호근, 1998)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공동체 지향적인 전통적 생활방식과 가장 차이가 나는 이러한 현상을 80년대 이후 심화된 주거공간의 분화와 개인화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근대적 사회로 접근할수록 혈연중심이나 친족주의의 확대가족보다는 철저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가족 형태가 변모해 가는 것이 특징인데 아파트의 공간구성은 한국사회의 가족관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가속도를 붙였다. 우선 전통적 대가족 하에서 가족 내부에서 남성들 간, 여성들 간 결합되었던 가족구도가 부부간, 아동들 간 결합된 구도로 변화하였다. 안방은 여성의 공

<표 3> 가구 규모의 축소와 주거수준의 변화(대한주택공사, 주택핸드북, 주택통계편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종합하여 재구성)

	평균가구원수(전체)	방2개 이하 아파트 비율(%)	방3개 이상 아파트 비율(%)	아파트방당 거주인 수
1975년	5.0	68.9	31.1	1.94
1980년	4.5	39.9	60.1	1.48
1985년	4.1	26.8	73.2	1.31

간이 아닌 부부의 공간으로 규정되었다. 부부공간이 나타남으로써 아동의 영역도 자연스럽게 분리되었다. 부부침실은 부부가 공유하고 부부애를 과시하는 영역이 되었고 더욱 깊숙이 들어간 사적 공간으로 변화, 정착되었다. 한편 부부침실이라는 명칭은 70년 한강맨션에서 최초로 사용된 이후 점차 보편화되었다.

7) 개인공간의 확보와 규모증가

80년대 이후 주거공간은 지속적으로 면적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한 부부가 낳는 자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세-49세)동안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수를 일컫는 합계출산력으로 보면 1970년에는 4.5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1.6명으로 급감하였다. 이때부터 개별주호 내에서도 내부의 공동생활공간과 개인공간은 상당히 분화가 진행되어 개인화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과거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한 방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요를 깔고 취침했던 좌식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침실에 침대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확보해야 할 공간의 규모는 늘어났고, 과거와 같이 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침대사용이 보편화된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아동들 간의 공유영역이었던 아동실은 점차 아동 하나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85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2세대 핵가족의 비율은 70.0%를 차지하며, 이들은 대부분 자녀 둘을 둔 규모였다. 즉, 두 자녀를 둔 핵가족이 당시 한국사회의 보편적 가족구성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아파트에서 방 세 개 이상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다. 즉 안방 겸 부부침실에서는 부모가, 다른 두 방에서는 자녀가 한명씩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의 질은 계속 높아졌는데, 예를 들어 한 방당 거주인은 30년 동안 2.4명에서 0.9명으로 줄었다. 절대면적이 증가한 상태에서 한 방에 거주하는 인원수가 줄어듦으로써 훨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주거공간의 지속적인 규모증가를 보여준다.

개인공간이 안락해지면 안락해질수록 하루 중 특정 시간대를 제외하고 가족구성원이 가족공동공간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개인의 은밀한 생활을 보장해 주었다. 사춘기 아이는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다른 식구들과의 공유시간이 아닌 자기만의 개인시간과 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공간 내 공동생활공간에서 과거 강제적, 유도적으로 형성되었던 공동의 일상사적 행위가 개인의 통제 하에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차폐된 개인공간은 가족 내에서도 익명성과 자유를 보장해주며, 결국 개인의 자기관리와 자기통제가 우선되는 근대사회 내 개인의 속성을 반영한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공간의 규모가 확대되고 실의 개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가족 구성원의 고립화와 개인화를 심화시켰다. 더구나 물질적인 풍요는 과거 공동으로 사용했던 공간과 가전제품, 설비 등을 점차 개인이 소유하고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거실뿐만 아니라 침실에도 TV가 하나씩 있고, 전화도 개인이 사용한다. 결국 각 실은 개인만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혼자만의 공간으로 변화했고, 은밀화, 내밀화되었다. 한편 90년대 이후에는 주거공간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컴퓨터의 발달로 공동 관심사를 위한 대면접촉 등의 행위 없이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이버 공동체가 탄생했고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한 공간의 공유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는 가구와 설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각자의 방에서 각종 사이버상의 교류를 즐기면서 거실로 나갈 일도 없어졌다. 이렇다보니 하루 종일 방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코쿤 현상도 나타났다.

V. 결 론

이상으로 지난 100년간 급변한 한국사회에서 우리의 주거의 모습이 전통사회에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는 가구구성이 구조적으로 변화했고 가족관계와 가족구성원들 간의 서열관계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형성된 시기이다. 이는 새로운 주생활의 유형을 탄생시켰고 주거의 의미와 사용방식, 공간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본 고는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상사의 단편들을 시기적으로 추적하여 공간으로 나타나는 근대적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였다. 주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념적인 것에서부터 실제적인 삶의 모습까지 투영하는 실체이다. 또한 일상생활은 공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주체인 개인과 가족이 머무는 공간의 역사는 많은 부분 일상의 역사와 중첩되는 것이다.

전통적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한국 주거를 둘러싼 일상사의 변화는 서구화와 식민화라는 외적 영향과 함께 근대화라는 내적 변화 동력이 함께 작용하며 생성된 산물이었다. 일상사의 변화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이루는 구조적 맥락을 읽을 수 있으며, 이것이 근대화 과정에서는 '분리', '분화', '개별화'라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삶의 자유와 기능화, 생활의 질적 향상을 표방하는 근대적 삶으로의 재편과정에서 공간은 점점 규모가 확장되고, 개별적으로 점유하고 지배하는 구조로 변화해 왔다. 지난 100년간 주거공간 안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과거 공동으로 영위했던 일상사가 개인의 주관과 의지에 따라 조절 가능한 일상사로 대체되었고, 공간은 기능에 따라 조각조각 나뉘고 분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회 내 익명성을 담보로 하며, 결국 현대의 소외의 문제에까지 이르도록 하였다. 많은 과거의 공간들이 사라졌고, 새로운 공간이 나타났으며 공간의 경계는 더욱 두터워 졌는데, 근대적 주거공간으로 변모해 가며서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한국 주거의 변화과정 속에서도 관찰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김영자(1994). **서울, 제2의 고향**. 서울: 서울학연구소.

김진송(2003).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권희영(2001). **한국사의 근대성 연구**. 서울: 백산서당.

노형석(2004). **모던의 유혹, 모던의 눈물**. 서울: 생각의 나무.

이광규(1997). **한국가족의 사회인류학**. 파주: 집문당.

정호근(1998). **근대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 서울: 철학과 현실사.

주남철(1999). **한국의 전통민가**. 서울: 아르케.

최병두(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서울: 삼인.

A. 뤼트케 편, 나종석, 문수현, 이유재, 박용희, 이동기 역(2002). **일상사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A. H. 세비지 랜도어(1895). 신복룡, 장우영 역주(1999).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파주: 집문당.

F. 브로델 저, 주경철 역(2004).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 일상생활의 구조**. 서울: 까치.

G. W. 길모어(1892). 신복룡 역주(1999). **서울풍물지**. 집문당.

H. B. 드레이크(1930). 신복룡, 장우영 역주(2000). **일제시대의 조선생활상**. 파주: 집문당.

I. B. 비숍(1897). 신복룡 역주(2000).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파주: 집문당.

J. 슐롬봄 편, 백승종 역(2002). **미시사와 거시사**. 서울: 궁리.

L. H. 언더우드(1880). 신복룡, 최수근 역주(1999). **상투의 나라**. 파주: 집문당.

M. 새비지 & A. 와드 저, 김왕배, 박세훈 역(1996).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서울: 한울.

박재환 편(2004). **일상생활의 사회학**. 서울: 한울.

강수택(1995). 아그네스 헬러의 인간학적 일상생활론 연구. **현상과 인식, 34(1)**, 117-141.

강수택(1998). 근대적 일상생활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회학, 32**, 503-529.

곽차섭(1999). 미시사-줌렌즈로 당겨본 역사. **역사비평, 1(1)**, 69-85.

박재환(2001).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적 삶의 구성원리. **사회과학논총, 20**, 1-23.

윤용선(1998). 독일 일상사의 이론적 논의. **외대사학, 8(1)**, 231-255.

임창복(1984). 다세대 단독주택의 형태적 특성과 거주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118)**, 39-43.

전남일(2003). 문명화이론을 통해 본 개항기의 주거와 그 근대성의 재조명.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27-28.

홍형옥(2005). 근대 이후 한국 주거의 미시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 가톨릭대학교 한국근현대연구팀 심포지움 자료집, 1-25.

서울특별시 편(1979). 서울 600년사 제3권. 서울특별시. 649-650.

개벽. 제24호. 1922년 6월.

개벽. 제32호. 1923년 2월.

개벽. 제40호. 1923년 10월.

경향신문 1975년 7월 12일자.

별건곤. 제16-17호. 1928년 12월.

별건곤. 제25호. 1930년 1월.

별건곤. 제38호. 1931년 3월.

삼천리. 제12권 10호 1940년 12월.

신가정. 제37호. 1936년 1월.

신동아. 제5권 8호. 1935년 8월.

여성동아. 1987년 8월.

여원. 1956년 9월.

춘추. 제2-7호. 1941년 8월.

현대주택. 1986년 5월, 1986년 11월.

대한주택공사. 주택핸드북.

대한주택공사. 주택통계편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Gerhard Müller(1985). *Alltag und Identität*. 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Hartmut Häussermann, & Walter Siebel(2000). *Soziologie des Wohnens.* Juventa.

Martina Löw(2001). *Raumsoziologie.* Suhrkamp.

(2006년 6월 30일 접수, 2006년 7월 25일 채택)